

‘세종’에 꼬인 전남 현안

J프로젝트·혁신도시·F1 등 연쇄 차질

전남도가 ‘낙후한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외면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사실상의 기업도시’로 방향을 선회한 세종시 문제가 겹치면서 J프로젝트와 나주혁신도시 등 민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남지역 현안사업들이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어 지역사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제시한 ‘세종시 수정안 기본구상’에서 세종시를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재정을 보조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값으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면서 민자로 추진되는 전남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

시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 민자 유치에 나설 경우 전남지역에 대한 신규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6개 사업지구 가운데 삼포, 삼호, 구성, 부동 등 4개 지구만 민자유치 기업이 구제화됐을 뿐 송촌과 초송지구는 아직까지 투자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종시로 민간기업이 쏠릴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주에 조성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역시 이전 예정인 17개 기관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1만9천여㎡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한전이 변전소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이전대상 기관들은 부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전계획이 승인된 14개 기관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해양경찰학교 등 4개 기관은 아직까지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

태다. 최근엔 한전이 부지 매입계약을 미루고 분양대금 이자를 추가로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세종시 논란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며 본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 또 다른 현안사업인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회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F1대회는 지난달 9일 ‘F1대회지원법’이 공포됨으로써 정부가 경주장 건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나라당 문방위원들과의 예산협약에서 F1경기장 건설비 880억 원을 빼는 등 F1대회를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전남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가 기업도시로 본격 개발되면 전남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겹테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남대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

창의성과 잠재력을 가진 인재 선발하기 위한 전남대 2010학년도 수시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이 25일 전남대경영전문대학원에서 실시됐다.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하다. 전남대는 27일까지 입학사정관 특별전형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28명을 선발한다. /위정량기자 jwji@kwangju.co.kr

알림
한자 이어 ‘만화 영어신문’
다음주 금요일 나옵니다

취학연령 만 5세로

미래위 저출산 대책...셋째 자녀 대입·취업 우대

저출산의 주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복수국적 허용, 이민 개방을 통한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박승준)는 25일 서울시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어린이 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

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해 내년 초 제2차 저출산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한 뒤 중기 재정운영계획 및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일보 모든 독자에게 무료 배달

광주일보는 월요 만화 한자신문 ‘즐거운 한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찬사와 호응에 힘입어 추가로 만화 영어신문 ‘즐거운 영어’를 발행, 무료로 배포합니다.

전기를 수준높은 만화로 구성, 누구나 쉽게 상황별 영어표현을 익힐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핵심문장과 주요 단어, 생활영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초·중·고생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익한 영어학습지가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백지화 ‘가닥’

정부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

다.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

다.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

지의 이전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최근 행정부처는 이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부처이전 백

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최근 몇 차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안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2월까지의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를 피하고 싶어서 세종시의 콘셉트에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소수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1. 모집인원 및 분야: 행정학 석사과정 40명, 공공행정 석사과정 40명, 행정학 석사과정 40명
- 2.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학사학위 취득, 전공 관련 학점 2.0 이상, 특별전형(특별전형 10명/내외) 일반전형
- 3.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기간 2009. 11. 23(화) ~ 12. 3(수) 2009. 11. 23(화) ~ 12. 14(수)
- 4. 연락처: 행정대학원 행정실 ☎ 062)530-5196, 2282 홈페이지: http://crwipgpa.kr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안내

idea BIZ BANK

www.staubiz.or.kr

062)526-8006

구분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1차 지원	신생기업	신생기업 지원금	신생기업
	신생기업	신생기업 지원금	신생기업
2차 지원	신생기업	신생기업 지원금	신생기업
	신생기업	신생기업 지원금	신생기업